

‘벚꽃대선’ 가시화 바빠진 黨·주자들

3월10일 탄핵·4말5초 대선
민주 경선 선거인단 모집 ‘홍행’
국민의당 3월 하순 후보 선출
범여권 보수표 재결집 나서

헌법재판소가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3월13일)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의지를 밝히면서 조기대선이 가시권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에 각 당과 대선주자들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관련기사 2·3·4면〉
현재의 일정대로라면 3월10일을 전후로 선고될 것으로 보이고 탄핵이 인용된다면 4월말~5월초에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 19일 박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기일을 3월 초로 연기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공식 요청하면서 현 시점에서 탄핵 인용 여부나 시기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인용되면 대선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각 정당과 후보들의 호흡도 가빠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선거인단 모집에 들어가는 등 대선준비 속도가 가장 빠르다. 민주당은 벌써 당 차원에서 대선공약을 가다듬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19일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분야별 대선공약으로 검토한 초안을 각 상임위 소속 의원들에게 돌렸다.

민주당은 또 지난 16일을 전후로 상임위별 회의를 열어 정책 제안과 개선 의견을 정리하는 등 내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당 중심의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다. 인재영입 역시 각 주자 캠프에만 맡겨두지 않고 당 차원에서 인사를 직접 발굴하겠다는 이달 초 인재영입위원회

에 시동을 건 상태다.

당 후보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표의 독주체제에 안희정 충남지사의 추격이 심상치 않은 추이를 보이면서 후보들간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각 후보진영의 완전국민경선을 대비한 선거인단 모집 경쟁도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당은 지난 17일 순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의 입당으로 통합을 완료하며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들어갔다. 일단 당 김영환 대선기획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3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경선절차에 돌입해 다음 달인 25~26일께 대선후보를 최종 선출하는 안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당 소속 국회 개헌특위 위원들은 이날 단독 개헌안을 공개하며 대선을 앞두고 개헌 이슈 부각으로 관심 끌기에 나선 모양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천정배 전 대표 등 3명의 후보는 경선표를 놓고 신경전을 펼치는 등 대선후보 경선을 향한 도전에 본격 나설 태세다. 경선표는 이달 안에 결정할 계획이다.

범여권은 갈 길 잃은 보수표가 재결집할 경우 대선판이 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범여권 후보군 중 가장 높은 지지도를 보이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가 주목된다. 여기에 ‘성완중 리스트’에 연루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홍준표 경남지사가 새로운 다크호스로 떠오른 상태다.

한국당에서 갈라져 나온 바른정당은 오는 20일까지 경선표를 확정하기로 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박지경기자jpkpark@kwangju.co.kr



스노보드 이상호
동계 아시안게임 한국 첫 금메달



LPGA 장하나
호주 오픈 시즌 첫 우승 ▶20면

광주 軍공항 이전 ‘침침산중’

전남 반발 예상·도의회는 반대특위 구성... 후보지 선정 난항
3월부터 전남 22개 시·군 ‘4500억 지원’ 주민 설명회 주목

경기 수원 군 공항과 대구 통합공항의 이전 예비 후보지가 발표되면서 광주 군 공항 이전 후보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군 공항 이전 후보지 결정과 기존 공항 부지 개발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오는

5월께 중간 결과가 나오면 이전 대상 지역을 3~4곳으로 좁히고 군 공항 이전 작업을 본격 시작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이에 앞서 다음 달부터 2개월간 전남도내 22개 시·군을 돌며 주민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 후보지에 사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특히 주민 설명회에서 군 공항 이전 사업의 내용과 4500억원으로 추산되는 이전 지역 주민지원사업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전 예비 후보지 대상인 전남지역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도내로 군 공항이 이전해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해 말 군 공항 등 군사시설 이전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최근에는 ‘광주 군사시설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했다. 이는 광주시가 군 공항 이전지원단 조직을 만들고, 광주시의회가 최근 군 공항 이전 특별위원회 구성에 적극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시·도 간 갈등 확산의 불씨가 될 우려도 크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비는 총 5조7000억원가량으로 광주시는 추정하고 있다. 새로 공항을 건설하는 비용 4조1000억원, 이전지역 개발지원비 4500억원, 광주 군 공항 부지 개발비용 8400억원 등이다.

광주시는 애초 올해까지 이전 후보지를 선정, 2022년까지 군 공항을 옮길 계획이었지만 이를 지키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용역이 빨라야 연말이 돼야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특검, 우병우 영장 청구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우병우(50)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관련기사 2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특검이 이달 28일로 예정된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던진 사실상 ‘마지막 승부수’로 평가된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의 국정 개입을 묵인·방조하고 이에 대한 이석수(54)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영·호남 학생산악연맹 일본 원정 등반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지역 학생산악연맹이 함께하는 ‘2017 영·호남합동동계원정등반대’ 40여명이 일본 나고야 야츠카다케 산군 해발 2500m에 베이스 캠프를 차렸다. 지난 17일 김해공항을 통해 일본 나고야로 입국한 이들은 10박11일 동안 설상 훈련, 빙벽등반훈련을 한 뒤 야츠카다케 산군의 최정상인 아카다케(2899m)봉을 오를 계획이다. /나고야=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한진해운 파산...광양항 물동량 ‘직격탄’

환적물량 10% 줄어 큰 타격

한진해운 파산에 광양항도 물동량 감소 등 직격탄을 맞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7일 한진해운에 파산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2주간의 항고기간 동안 적법한 항고가 제기되지 않아 최종 파산 선고를 내리게 됐다. 법원은 김진

한 변호사를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해 조만간 본격적인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이에 따라 광양항도 한진해운의 환적물동량이 크게 줄어 큰 타격을 입게될 전망이다. 19일 여수광양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 222만 4000TEU(20피트 길이 컨테이너) 가운데 22만TEU는 한진해운 물량이었다. 정확히 10%를 한진해운이 맡았던 셈이다.

2015년에는 232만7000TEU 중 32만TEU 가량이 한진해운 물량이었다.

광양항 물동량 중 한진해운이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 13%를 넘었지만,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난해 다시 10% 아래로 떨어졌다.

수출 물량은 다른 선사를 통해 광양항을 거쳐 갈 수 있지만, 한진해운 환적물량은 ‘대체 불가’일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한진해운 환적물량은 2015년 13만9000TEU에서 지난해 9만4000TEU로 급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일보 since 1952 **65** 광주일보 창사 65주년 | 호남예술제 62주년 기념공연

2017 트리오 광주공연 Music from PyeongChang

정명화 | 손열음 | 신지아

2017년 3월 28일(화)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대극장

R석 77,000원 | S석 66,000원 | A석 33,000원

문의 (062)220-0541 | 예매 티켓마루(ticketmaru.co.kr/1588-0766) | 주최 광주일보·아시아문화 | 제작 WCN



첼로 정명화

멋과 재능, 그리고 기교의 연주가
첼리스트 정명화



피아노 손열음

뛰어난 통찰력과 한계없는 테크닉
피아니스트 손열음



바이올린 신지아

K-클래식의 대표주자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